



# 제주 장한철과 청산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1770년 표류 청산도 표착 '표해록' 등장하는 여인과 못다 이룬 짧은 사랑 소재 하트 모양의 '개매기' 설치 완도군 "체험장 활용 홍보"



전남 완도군에서 장한철 '표해록'의 배경이 되는 청산도에 설치한 하트 모양의 '개매기'. 완도군은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개매기'를 체험장으로 활용하면서 장한철과 청산도의 인연을 알리기로 했다.

조선시대 '표해록(漂海錄)'을 남긴 제주 사람 장한철과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인연이 약 250년 만에 되살아났다. 완도군은 '해양문학의 백미'로 불리는 장한철의 '표해록'을 바탕으로 청산도 조씨 여인과 장한철의 못다 이룬 사랑을 주제로 최근 하트(♡) 모양의 '개매기' 체험장을 만들었다.

지금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태생인 장한철은 1770년(영조 46년) 10월(음력) 향사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뒤 서울 예조에서 실시되는 회시(會試)를 치르기 위해 그해 12월 25일 제주 바다를 건너다 거친 비바람 탓에 표류한다. 장한철을 포함 일행 29명이 유구(지금의 오키나와) 지경까지 떠내려가는 등 조난 끝에 도착한 곳은 청산도였다. 1771년 정월 초 6일 청산도에 다다랐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다. 장한철은 당시 청산도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제주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고 생존자들이 머무는 7일 동안 돌아가며 밤낮없이 돌봤다고 '표해록'에 기록해 놓았다.

'표해록'은 이곳에서 장한철이 청상과부로 살던 스무살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다고 쓰여있다. 여인은 청산도 표

작 직전 장한철의 꿈 속에 나타났던 인물로 훗날 실제 현실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소설과 같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인은 장한철에게 "낭군 이 저를 버리지 않는다면, 가히 남풍이 불 때를 말미암아 좋은 소식을 듣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며 "5년을 기한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완도군은 이같은 두 남녀의 애절한 사연을 영화 '서편제' 촬영장으로 잘 알려진 청산도에 하트 '개매기' 체험장으로 담았다. '개매기'는 물 빠짐이 뚜렷한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썰물 때 가두어 잡거나 말뚝을 박아 만조시간에 그물을 올려 물이 빠

지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을 뜻하는 방안이다. 체험장은 가로 50m, 세로 50m의 넓이로 1년을 상징하는 365개의 말뚝을 박아 '슬로길'이 시작되는 도락포구에 설치했다.

물이 빠지는 시간에 따라 하루 두 차례 모습을 드러내는 하트 '개매기'에는 제주로 떠난 장한철이 그리워 바닷가에 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한 여인의 절절한 사랑이 250년 뒤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가 담겼다. 말뚝 위에는 낮에는 햇빛이, 달밤에는 달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반사판을 부착해 시각적 효과를 더하고 있다. 완도군은 슬로걸기

축제 등에 맞춰 해당 체험장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청산도 인구 수는 2329명에 이른다. 이곳에 한 해 약 28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완도군 관광과 이승현 과장은 "이번에 하트 '개매기'를 설치하면서 청산도를 기록한 장한철 '표해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청산도 관광해설사들에게 '표해록'을 알리고 그 내용을 요약한 표지석이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화기자 sunny@halla.com

# 문화계 코로나 종합대응계획 세운다

문예재단 긴급 대책회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추진

는 게 시급하다는 문예재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에 신인 이소택 이사장과 예술 창작팀 직원 등이 함께 방문한 문화공간은 문화놀이터 도체비(대표 변중수), 예술공간 오이(대표 오상운), 새타랑(대표 강나경)이다. 공간 방문에서 변중수 '도체비'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한 제주예술계 실태, 제주문화예술의 방향과 '도체비'의 공간운영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시 연북로 예술공간 '오이', 제주시 원도시에 위치한 시각공간 '새타랑'에서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술인 의견을 듣고 공간 방역현황 점검과 방역물품 전달에 나섰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소택)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조직 내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개최된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비대면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문화예술계 담론 수립 토론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과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대응 문예재단의 방침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문화예술공간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예술 현장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듣

이소택 이사장은 이날 "현장 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며 "낙후된 공연장 시설 개·보수를 민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문화해비타트'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선화기자



지난 5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소택 이사장과 예술창작팀 직원들이 문화공간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 제주교향악단 교향악축제 불참 결정

작년까지 총 17회 참가 "지역 무대에 우선 집중"

악축제를 치를 예정이었다.

제주교향악단은 클라리넷 체제일 이 협연하는 슈타미츠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7번'과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을 선곡해 교향악축제로 향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주최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 제주도립 제주예술단 측은 "서울 공연보다는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제주 시민들에게 좀 더 집중하는 무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제주교향악단은 전신인 제주시립교향악단 시절을 포함 1990년 이래 지난해까지 총 17회에 걸쳐 교향악축제에 참가했다.

1989년부터 시작된 교향악축제는 전국 대표 오케스트라들이 한곳에 모여 음악으로 경쟁을 펼치는 무대다. 매년 4월 개최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7월 28-8월 10일로 일정을 늦췄다. 예술의전당은 당초 제주교향악단 등 전국 17개 교향악단과 1개 해외 단체를 초청해 교향

진선화기자

# 문화가 짝지

## 신화 스토리 한민규씨 대상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한 2020 제주신화 콘텐츠 원천소스 스토리 공모전에서 한민규씨의 '용의 아이'가 대상작으로 뽑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61편이 접수됐다. 대상작인 '용의 아이'는 김동진 장군의 신화적 전승과 삼별초 이야기가 어우러져 장대한 이야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박세리씨의 '꽃감관 출장기-서천류정 추억의 지', 우수상은 성미연씨의 '전설 속 그 곳'에게 돌아갔다.

## 국립박물관 '기타 올림' 공연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은 '박물관과 함께하는 기타 올림' 공연을 6월 13일 오후 5시, 6월 14일 오후 2시 등 2회에 걸쳐 박물관 강당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극복 클래식 기타 희망 콘서트'를 주제로 열려 뮤지컬, 팝, 가요, 트로트 등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된다. 한국기타음악협회와 김해경기타아카데미 기타합주단이 출연한다. 관람료 무료. 사전 예약 누리집 참고. 문의 720-8035.

## 문예회관 뮤지컬 공연 연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이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2020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을 연기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일정 변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가 공공시설 임시 휴관 종료일을 6월 22일에서 7월 5일로 미룬 데 따른 것이다. '팬데믹'은 일정을 맞출 수 없어 올해 공연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비커밍맘'은 12월 24일, '6시퇴근'은 12월 27일로 공연 날짜를 조정했다.

## '감쪽같이 여름나기' 강좌

인화사회적협동조합(대표 송창윤)이 '감쪽같이 여름나기'란 이름으로 천연염색 강좌를 개설한다. 이달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40분부터 화당 2시간씩 진행되는 강좌로 천연염색법과 재봉틀 사용 방법을 익히면서 마스크 만들기, 팔도시 만들기, 양말과 속옷 염색, 바지 만들기 등이 이루어진다. 천연재료를 이용해 집에서 안입는 옷을 새활용할 수 있다. 늘솜창작소 기자 소장이 강의를 맡는다. 참가비 15만원, 문의 752-4110.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0,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선심의 심의번호 2020-GN00079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